

하루를 시작하며



권 주희
스튜디오126 대표·독립기획자

한 해를 계절로 쉼 때 가장 먼저 언급하는 계절, 봄이다.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물러나고 해가 곁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4월은 여러 가지가 움트는 시기다. 앙상한 나뭇가지에 돌아난 새싹, 다채롭게 피어나는 꽃, 식탁에 차려진 향긋한 봄나물을 보면 한 해를 다시금 시작하는 기분마저 든다.

한편, 제주의 4월은 차가운 역사를 애도하는 추모의 물결이 이어진다. 4·3 평화공원에서 4·3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추념식을 진행해 유가족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듬

따뜻하고도 시린 우리의 봄

는 자리를 마련한다. 미술계에서는 매년 4·3 미술제를 통해 사건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필자도 몇 해 전, 한 기관의 의뢰로 4·3 청년작가전 '다시 돌아, 그린 봄'이라는 전시를 기획한 바 있다. 당시 제주에 입당한 지 고작 2년 정도 되었을 무렵인데, 내가 제주라는 지역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사건을 꺼낼 자격이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했다. 결론적으로 전시는 현재의 우리가, 그리고 미래의 세대가 자녀야 할 자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즉, 역사적 사건 자체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삶과 죽음'의 해석에 중심을 두고 역사적 반성을 토대로 우리 세대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누구나 인생에서 겪는 감정이 있다. 이를테면, 존재의 부재, 소멸해가는 대상에 대한 아픔, 부재의 흔적과 자취에서 느껴지는 그리움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역사를 되짚어보면 역사가 지닌 아픔은 특정한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것이 된다. 제주에서 나고 자랐든, 타지에서 바라보았던 역사를 인지하고 해석하고, 기록하고 사유하는 일련의 과정은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한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세월호 참사 10주년이기도 하다. 10년 전, 그날의 나는 두 돌이 되지 않은 첫째 아이를 안고 종일 보도되는 뉴스를 보았다.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함부로 이해할 수도, 위로할 수도

없지만 엄마로서 헤아려 짐작할 수 있는 감정은 분명히 존재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다.

역사란 조용히 잠들어 단절된 과거가 아니다. 지구가 공전하여 제자리로 돌아와 봄을 알리듯 과거는 또다시 우리와 연결된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는 해석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서로를 반추함을 뜻한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기록하는 무게만큼 현상을 바라보고 해석함에 있어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사유가 중요하다. 자연이 움트는 봄처럼 우리의 사유도 조금씩 움트는 4월이 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먼 훗날, 세대를 거듭하여 새로이 그려지는 역사는 차갑고 시린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따뜻한 '봄의 언어'로 덧씌워 그려지기를 염원한다.

사설

“기후위기 대비하라”는 지적 새겨들어야

한라일보가 창간 35주년을 맞아 국내 저명 석학의 고견을 듣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그 주인공은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다. 그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류가 직면한 팬데믹·기후위기·생물 다양성 고갈의 문제를 고찰해 왔다. 그래서 '통섭 전문가'로 통한다. 진화론자인 그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여러 제언을 했다.

최 교수가 제주에 대해 걱정하는 문제는 기후위기다. 제주도와 같은 섬의 작고 고립된 생태계는 충격 흡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추세가 이어지면 열대성 질병이 제주로 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초동대응을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제주도정에서 탄소중립을 강조했는데 당시 도로도 많이 만들

고 제2공항도 추진한다고 해서 말과 행동이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꼬집었다. 기후변화 최전선에 서겠다면서 공항 만들어달라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먼나라의 얘기가 아니다. 현재 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 문제다. 온나를 들끓게 한 '금사과'가 단적인 사례다. 사과값이 크게 오르면서 프르트 플레이션 (과일+인플레이션)이란 신조어까지 유행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사과꽃이 피는 4월에 서리가 내리면 서 냉해와 가을 우박 등이 발생해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감소한 탓이 크다. 앞으로 다른 작물에서도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야 초동대응을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제주도정에서 탄소중립을 강조했는데 당시 도로도 많이 만들

열린마당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준수해 탑승합시다



서형욱
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

급매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어주는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체감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18년에 전국 225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도에는 2386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통행 방법이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인도 주행은 금지돼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함을 주지만,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행 시 교통사고 등 위험이 따라오므로 반드시 안전모 착용 및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이용 후에는 안전한 곳에 주차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도 “베트남 룽안성 산업교류협력 강화”

직향노선 개설 협력 당부

○...제주도가 베트남의 경제 중심도시로 성장 중인 룽안성과 미래 첨단산업 분야를 비롯한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교류협력을 강화할 방침.

오영훈 지사는 23일 도청 집무실에서 우유엔 반 옷 룽안성 인민위원장 겸 당 부서기를 만나 양 지역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

오 지사는 “교류협력시 그린수소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민간 우주산업, 탄소배출 없는 신산업과 관련해 연계를 강화하고 싶다”며 “아울러 제주와 호치민시 간 직향노선이 개설되면 룽안성과의 교류 속도가 빨라지고 내실도 기할 수 있어, 직향노선 개설에서 룽안성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

“中 특수 관광객 유치 확대”

○...중국인의 방한관광이 본격화되면서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중국 동북과 서부내륙 지역을 찾아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양방향 마케팅을 진행.

23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국 동부지역의 주요 도시인 선양과 서부내륙 주요 거점인 청두에서 열린 한국관광공사 B2B 트래블 마트 기간 동안 동북3성 지역과 서부 내륙지역 내 항공사와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제주여행 상품을 집중 홍보.

특히 특수목적관광(SIT)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도내 SIT 전문 여행사의 상품 홍보를 통해 트레킹과 마라톤, 서부 내륙지역은 골프와 낚시, 해양 레저 등 상품 개발을 협의해 후속 연계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

학교체제 개편 문제 방향성 설정이 중요

김광수 교육감이 공약사항으로 추진중인 학교체제 개편에 대해 9월 중에 밑그림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질에서 단성(單性)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포함 학교체제 개편안을 9월쯤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예술고·체육고 신설 혹은 전환,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등 학교 인프라, 제주고·제주여상의 일반고 전환 등 급격한 현안에 대한 해법이 하반기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김 교육감은 단성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은 제주시 등 지역 공립중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예술고·체육고 신설 또는 전환 공약 추진 방향에 대해서 교육의 효과, 재정 투자 및 지속성을 고려해 좀 더 고민해 결론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견들 사이에선 “학교 체제개편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고,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학교체제 개편 문제는 선택이 아닌 우리 사회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 기저에는 출생률 감소와 급속한 환경 변화 등이 맞물려 있다. 이미 도내에도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학교 입학생이 0명인 학교가 나오고,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곳도 33곳에 이른다. 교육 현장은 이러한 흐름에 어떻게 대응하고, 방향성을 설정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추진과정에서 투명하게,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미래를 내다본 학교체제 개편 방향성을 고민하기 바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고합2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 강형석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으나 공소사실 중 피해자 재이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은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4. 4. 23.
판사 홍은표

모지매매
연동 2488-439
모지매매(문종토지)
618㎡ 조성완료
3.3㎡ 당 55만원
☎ 010-3699-0254

왕칠나무는 제주가 원산지이며 최고의 약용식물임
왕칠나무의 효능
★ 혈액순환 촉진 ★ 간기능 개선
★ 생육 촉진 ★ 항암·항산화 효과
왕칠발효액의 효능
★ 소화 흡수를 상승 ★ 고기 특유의 냄새 중화
★ 요리시 원액 : 물을 2:8의 비율로 희석하여 약6시간 이상 침적할 경우 육질이 부드러워 고기 특유의 냄새를 중화시킴
★ 음용시 원액 : 물 혹은 커피, 요구르트 등을 2:8의 비율로 희석하여 수시로 드시면 좋음
왕칠재배농장 제주시 보매길 32-16
濟大수의학과출 70대 수의사(김상철) 개발중
문의전화 010-5169-4520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모지·문종모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모지관리·모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모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모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 010-7305-7819 제주토박이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문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술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PK약백도라지연구소